

구미 年 4천억 매출 중견기업, 화마로 '셋다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생산 마비

공장 내 재고 필름 못 옮겨 전손 판정 땀 320억원 피해 원상 복구까지 최소 6개월 직원 일자리 유지도 불확실

구미 4국가산업단지 내 일본투자 중견기업인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사실상 생산 기능을 상실해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CD용 광학필름 제조공장인 이 회사는 이번 화재로 공장 1개 동이 전소돼 당장 생산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7대 3 비율로 투자해 설립했으나, 현재는 일본 기업이 지분을 모두 인수한 일본 투자기업이다. 임직원 200여명이 넘는 이 회사는 LG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며 연간 3천억~4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공장 화재가 확산되면서 전자장비, 재고 필름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5시 25분에 시작된 불은 14시간만인 5일 오전 7시 16분이 돼서야 불길에 완전

히 잡혔다. 공장 안에 있던 재고 필름이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손 판정을 받을 시 약 320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생산 전자장비 등의 피해가 추가로 집계되면 눈덩이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불로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전자장비 등이 많이 들어간 공장이기 때문에 화재 피해 보험금 수령, 설비 공사 등 원상 복구까지 최소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구미를 제외하고 국내에 별도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고, 화재 피해 복구기간 동안 중국, 일본 자회사 등을 통해 대체 생산해 납품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불확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5일 오전 불길을 완전히 잡은 후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매출 4천억원이 되는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공장이 빠르게 원상 복구되고, 임직원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lch888@maeil.com

이영광 기자 kwang623@maeil.com



캠퍼스 마임공연 5일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뽀뽀의 마음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북대는 오는 11일까지 문 화주간으로 정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에게 활력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해안도로가 풍랑에 무너져 통행이 금지돼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해안도로 와르르 장기면 1천가구 단수

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79-12번지에서 해안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지난 태풍 '힌남노' 때 옹벽과 도로가 벌어지는 등 지반이 약해져 차후 수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4일 오후 10시쯤 풍랑으로 인해 지반이 무너지며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도로는 복구 완료 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이번 사고로 도로 밑에 준설돼 있던 상수도관이 함께 망가지며 5일 오후 6시쯤까지 주변 17개 마을 1천 가구가량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기존 마을상수도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날 오전부터 마을을 우회하는 임시 수도관을 설치해 단수 상황을 응급 복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긴급히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maeil.com

지난해 경북 화재 발생 2,800여건 '전국 4위'

소방차 진입불가 구역 피해 우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2천800여 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주거지역 화재가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집중돼 피해 우려를 키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재 건수는 3만6천26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재 건수는 경북이 2천849건으로 경기(8천169건)와 서울(4천951건), 경남(2천864건)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대구는 1천189건으로 전국 12위였다.

홍준현 기자 hjh@maeil.com

화재 장소별로 보면 경북에서는 '주거공간'(689건, 24.2%)이 가장 많고 '산업시설'(480건, 16.8%), '자동차·철도차량'(411건, 14.4%), '임야'(126건, 4.4%) 등 순이었다.

대구 역시 '주거공간'(290건, 24.4%) 비중이 컸다. 이어 '생활서비스'(206건, 17.3%), '산업시설'(189건, 15.8%), '자동차·철도차량'(159건, 13.4%), '판매·업무시설'(66건, 5.6%) 등 순이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구역은 전국 883곳, 총거리는 445km로 조사됐다.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5곳(169km)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19곳, 14km)은 전국 8위로 나타났다.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사 퇴사 70% '입사 1년차'

코로나 전담...업무 고강도 원인

국립대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의 상당수가 입사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사 퇴사자의 경우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에 비해 입사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사자의 30% 이상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간호사 퇴사자

중 입사 1년 이내인 비율은 전국 14곳 국립대병원(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제외)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퇴사한 99명의 간호사 중 69.7%(69명)은 입사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경북대병원의 퇴사 간호사 중 입사 1년 이내는 64.5%로 칠곡경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칠곡경북대병원은 9월까지 퇴사 간호사 중 입사 1년 이내인 경우가 65.5%로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중증 환자가 많아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jh224@maeil.com

대구의료원 의사 결원율 21% '전국 2위'

경북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최근 5년(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간 전국 의료원들의 의사 결원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구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에서 올해 9월 기준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2018년 13.6% ▷2019년 18.2% ▷2020년 25% ▷2021년 27.3% ▷2022년 9월 20.5% 등 5년 평균 의사 결원율이 20.9%로

집계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대구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44명이지만, 9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경북 내 의료원(포항·김천·안동·울진)의 의사 결원율은 8.4%로 전국 평균(12.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의사 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로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현정 기자



한 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방송 · 인터넷 · 전화 결합상품으로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TV

+

+

대구·경북 SO협의회

대구 달서구 푸른방송
대구 달성군 (053)551-2000

대구 북구 HCN금호방송
1877-8600

포항/울릉 영덕/울진 HCN경북방송
1877-8877

구미/김천/성주/칠곡/성주/고령/군위 HCN새로넷방송
1877-8700

인동/영주/예천/영성/봉화/문경/청송/영양 LG헬로비전영남방송
1855-1000